

손명수 차관, “겨울철 도로안전, 빈틈없이 관리해야”

- 살얼음 제거 등 도로 제설대책 최일선 찾아 인원·장비 등 집중점검 -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8일(목) 강풍과 대설이 예보된 가운데, ‘예산국토관리사무소’와 ‘보령-태안1 국도건설현장’을 방문하여 겨울철 제설대책, 코로나-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로관리원 등 현장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- 예산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손 차관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장비 등을 직접 점검하고 “제설대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 달라”면서,
 - “특히, 내일(29일)까지 대설과 함께 태풍급 강풍도 예보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 - 또한, 손 차관은 “코로나-19 방역수칙 준수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제설작업에 묵묵히 애써주셔서 감사”하다면서,

“겨울철 도로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도로관리원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”이라며 현장관계자를 격려했다.

- 이어, ‘보령-태안1 국도건설현장’을 찾아 사업현황을 보고 받은 손 차관은 “보령-태안 해저터널은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”이라면서, “어려운 시기이지만 예정대로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”을 강조했다.
 - 아울러, “국내 최장 해저터널을 준공하는 마지막 날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”을 주문했다.

- 한편,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했다.

2021. 1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